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지난 3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리허설이 열린 올림픽파크 일대를 화려한 조명과 불꽃이 장식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박승선 기자〉

■ 한국 골든데이는 언제?

| 10일(토) | 11일(일) | 12일(월) | 13일(화) | 16일(금) | 17일(토) | 18일(일) | 19일(월) | 20일(화) | 22일(목) | 24일(토) |
|--------------------|---------------------------------------|------------------------------|---------------------------|--------------------|-------------------------|----------------------------------|---------------------------|---------------------|---------------------------------------|---------------------|
| 쇼트트랙 남 1500m 결승 | 바이애슬론 남자 스피린트 10km 러 귀화 티모페이 랍신 | 피겨 남성 싱글 차준환 여 최다빈·김하늘 | 쇼트트랙 여 500m 심석희·최민정 | 스켈레톤 윤성빈 첫 금 도전 | 쇼트트랙 여 1500m·남 1000m |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여자 500m 3연패 도전 | 봅슬레이 남자 2인승 원윤종·서영우 |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 쇼트트랙 남자 500m·여 1000m 남 5000m 계주 | 빙속 매스스타트 이승훈·김보름 |

10일 쇼트트랙 금빛 포문... 설 연휴 윤성빈·이상화 새 역사 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안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내 팬들이 시차 걱정 없이 태극전사들의 메달 레이스를 지켜볼 수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메달레이스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후 7시 이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전이 펼쳐진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세이라(26·화성시청)와 2017~2018 시즌 월드컵 1,500m 랭킹 1위인 황대현(19·부흥고) 등이 금메달을 겨냥한다.

11일에는 바이애슬론 남자 스피린트 10km에 출전하는 러시아 출신 귀화선수 티모페이 랍신(30·조인커뮤니케이션)이 설상 종목 사상 한국의 첫 메달을 노린다.

12일 오전에는 한국 피겨의 10대 유망주들인 남자 싱글의 차준환(17·휘문고), 여자 싱글의 최다빈(18·수리고)과 김하늘(16·평촌중)이 은반 위에 선다.

13일에는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 심석희(21·한국체대·강릉출신)와 최민정(20·성남시청)이 여자 500m에 출격한다.

설 연휴(15~18일) 기간에는 본격적인 메달 수확이 전개된다.

설날인 16일 오전에는 남자 스켈레톤 세

러시아서 귀화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등서도 낭보 기대

계령길 1위 윤성빈(24·강원도청)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윤성빈이 정상에 오른다면 한국 썰매 사상 첫 메달, 금메달을 거머쥐게 된다.

17일에는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동반 금메달을 노린다. 한국이 강세인 여자 1,500m 결승전과 남자 1,000m 결승전이 펼쳐진다. 그리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빙속 여제' 이상화(29·강릉 스포츠포토)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방상 사상 첫 3연패 위업에 도전한다.

연휴가 끝나도 메달 행진은 계속된다. 19일에는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서 원윤종(33·강원도청)-서영우(27·경기도BS경기연맹) 조의 메달 소식이 들릴 전망이다. 흥

이상화 독일대회서 트랙 신기록

빙속 500m 37초 18로 1위... 스타트 기록 시즌 최고

빙속 여제 이상화(스포츠포토)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삼아 출전한 B급 국제대회에서 트랙 신기록을 세우며 올림픽 3연패 전망을 밝혔다.

이상화는 4일(한국시간) 독일 인젤 아이스슈타디온에서 열린 프리랜제컵 대회 여자 500m에서 37초 18로 1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스타트 기록이다. 이상화는 이번 대회에서 100m를 10초

트랙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윤성빈과 함께 썰매 신화를 창조할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대표팀이 금메달 바통을 이어받는다. 지난 6차례의 동계올림픽 가운데 한국은 여자 계주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22일에는 쇼트트랙 남자 500m, 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가 펼쳐져 최대 금메달 2개를 캐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24일에는 이승훈(30·대한항공)과 김보름(25·강원도청)이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에서 동반 우승에 나선다.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인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10일 오후 9시 10분 스위스와의 예선 1차전을, 12일에는 스웨덴, 14일 오후 4시 40분에 일본과 차례로 격돌한다. 여자 아이스하키 예선 전 경기는 관동하키센터에서 진행된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강경모 기자

35에 끊으며 올 시즌 최고 수준의 스타트 기록을 세웠다.

그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켈거리 오벌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3차 대회에 출전해 36초 86의 당시 시즌 베스트 기록을 세웠다. 당시 100m 기록이 10초 35였다.

한편 이상화는 5일 귀국해 6일 강릉에 입성한다. /연협뉴스

모두 다 웃을 순 없다

세계가 주목하는 진검승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축제의 장이지만 냉혹한 승부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치르게 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를 짚어본다.

△천재와 황제의 진검승부=스켈레톤 천재라고 불리는 윤성빈(24·강원도청)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 중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윤성빈은 2017~2018 시즌 스켈레톤 월드컵에 7차례 출전, 금메달 5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내면서 스켈레톤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스켈레톤 세계 정상에 선 윤성빈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스켈레톤 황제' 마르틴스 두쿠르스(35·라트비아)다.

두쿠르스는 2009~2010 시즌 월드컵 랭킹 1위를 한 이후 2016~2017 시즌까지 8시즌 연속 랭킹 1위를 지켰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세계선수권을 5번이나 제패, 스켈레톤계의 황제로 군림해 왔다.

△빙속여제 판가름=동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미터 2연패에 빛나는 이상화(30)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화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

스켈레톤 윤성빈-두쿠르스

빙속 500m 이상화-고다이아

여자 아이스하키 미국-캐나다

남자 피겨 하뉴-네이션 첸

득하게 되면 미국의 보니 블레어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3연패라는 금자탑을 쌓게 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고다이아 나오(33·일본)다. 뒤늦게 빛을 보고 있는 고다이아는 2017~2018 시즌 월드컵 4차 대회까지 500m 경기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자 1,0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는 등 상승세가 놀라울 정도다.

△사촌심 결린 속명의 대결=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는 미국(세계 1위)과 캐나다(세계랭킹 2위)가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나라의 연은 1998년 여자 아이스하키가 동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이어져 오고 있다.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미국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이후 2002년 솔트레이크시

티 동계 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까지 모두 캐나다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하는데 그쳤다.

미국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선수권에서 7차례나 우승을 했지만 정작 올림픽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5연패를 할지, 아니면 미국이 평창 올림픽에서 실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쿼드러플 점프 전성=피겨 스케이팅의 승부수는 '점프'다.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피겨스케이팅 싱글에서는 쿼드러플(4회전) 점프의 성공여부가 순위를 결정 지을 전망이다.

특히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왕좌를 차지한 하뉴 유즈루(23·일본)와 점프 기계러는 별명을 가진 네이션 첸(19·미국)의 대결이 주목된다.

하뉴는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남자 피겨스케이팅 싱글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다.

하뉴의 1위 자리를 넘보는 선수인 첸은 발레를 배운 덕분에 우아한 동작이 강점이다. 특히 2017년 4대륙 선수권과 올해 1차 그랑프리 대회에서 하뉴와 맞붙어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취재단=임재혁 기자

지역 첫 해외 전훈 광주일고 야구부 “올해는 명성 회복의 해”

광주일고 야구부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명성 회복'을 목표로 2018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일고는 지난날 14일 일본행 비행길에 올랐다.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로 날아간 이들은 이곳에 캠프를 차리고 올 시즌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지역 아마추어팀들의 해외 전지훈련은 흔한 일이지만, 광주지역의 야구부가 해외 전지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용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해외 훈련을 계획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겨울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고흥, 부산 등을 찾아 훈련을 했던 광주일고는 올 시즌을 앞두고는 후쿠오카를 시즌 준비를 위한 무대로 삼았다.

나훈 광주시야구협회장의 '남다른 인맥'이 큰 힘이 됐다. 현의송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과 일본 오야마 농협의 아하다 조합장의 노력으로 야구광으로 소문난 일본료·유행 회사의 순사쿠 기타무라 회장과 연이 닿으면서 광주일고가 후쿠오카로 건너가게 된 것이다.

기타무라 회장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를 했던 야구인 출신으로 실업팀과 유소년 야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무라 회장은 광주일고의 부탁에 흔쾌히 자신이 운영하는 이토시마시 야구장을 전지훈련지로 내어주면서 이번 전지훈련이 성사됐다.

야구장에는 실내 연습장과 야간 조명 시설은 물론 선수단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까지 갖춰져 있다.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광주일고

선수들은 실업팀과의 연습경기에서 일본의 '형님'들을 제압할 정도로 기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기타무라 회장이 선수들의 아침·점심을 위해 김밥과 회사에서 만든 빵과 샌드위치, 도시락 등을 제공하면서 광주일고 학부모 등의 걱정까지 덜어주었다.

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성영재 감독은 "야구장 시설이 잘 되어있고, 숙소와 야구장이 함께 위치해서 이동시간도 없다"며 "오전, 오후 훈련은 물론 야간 훈련까지 선수들이 원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연습할 수 있다"며 첫 해외 전지훈련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또 "야구는 팀워크가 중요한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개인보다 팀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어울리고 배려하면서 자라들끼리 뭉치는 모습이다. 팀워크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전통의 강호"라는 명성에 어울릴 시즌 준비도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 이번 캠프에서 성 감독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기본'이다.

성 감독은 "기본기와 수비 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마추어 야구에서 수비는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부분이다. 지난 시즌에도 수비 때문에 흔들린 경기가 많았다. 공격을 잘하면 점수를 낼 수 있지만, 수비를 못하면 경기를 지게 된다"며 "선수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주고 있다. 학생 야구인 만큼 기본적인 플레이와 예의에도 집중하고 있다. 성격은 그다음이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팀을 만



지난 3일 일본의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 실내야구장에 캠프를 차린 광주일고 야구부가 올 시즌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들다 보면 성격도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남은 기간 팀을 잘 만들고 돌아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광주일고는 오는 14일 첫 해외 전지훈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쿠오카=클 사진 김여울기자 wool@